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학과 | 경영학과 | 이름 | 주*영 |
| 파견국가 | 캐나다 | 파견도시 | 밴쿠버 |
| 파견대학 | Langara college | 파견기간 | 8/27~12/17 |
| 귀국여부 | 예 | |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밴쿠버 중심부에 있으나 다운타운과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다.그러나 스카이 트레인을 타면 20분정도 밖에 안 걸리며 교통편이 잘 되어있다.그래서 어딜 살던간데 등교하기 편한편이다.</p> <p>대부분의 시설은 신축 건물이며 깨끗하고 매일매일 청소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잘 관리된다.</p> |
| 2018-2학기 수업 | <p>나는 leap 3와 4를 수강했다.3에서는 주로 책을 사서 읽게 하며 게임도 하고 수업시간이 재미있는 편이다.선생님들도 아이들 한명에게 다 신경 써주려고 노력하시며 여러 국가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신다.4에서는 좀 더 아카데믹한 학문을 많이 배운다.작문도 많이 어려워지며 숙제도 많아지는 편이다. 과제에 관한 부분은 오기 전부터 마음 편히 먹고 있었더니 생각보다 오래걸리지 않았다.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소비했으며 많으면 하루에 4개가 있고 아예 없는 날도 많다</p> |
| 프로그램 운영 | <p>오리엔테이션은 각 국가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한국인 봉사자분이 계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인이 정말 없어서 이때 말고는 보기가 힘들다.여러가지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나는 스포츠 활동을 주로 했었다.같은 반 친구들과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등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다.하지만 돈이 매번 든다.</p> <p>가장 좋았던 점은 홈스테이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분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문제 처리를 해주려고 노력한다.한 30분 정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홈스테이에 대한 정보도 잘 공유해주며 나에게 잘 맞고 평가가 좋은 곳으로 최대한 배정해주려고 한다.</p>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생각보다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겨울에는 추웠다. 롱패딩입을 정도는 아니고 코트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또한 날씨가 정말 금방금방 바뀌니 거의 3계절(여름,가을,겨울)에 대한 옷을 가져가야한다.</p> |
| 안전 | <p>정말 안전한 편이다.사람들이 교통준수도 매우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그러나 밤에 다운타운 쪽에 있으면 마약을 피는 사람들이 많아 조금 위험하긴 함으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p> |
| 숙소 |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0) 외부 숙소() 기타()</p> <p>홈스테이에서 지냈는데 역시 정말 별로였다. 첫 홈스테이는 매일 아침을 똑 같은 것만 주고 가족간의 소통이 정말 없으며 별로 예의있지 않아서 문제점에 대해 타협을 해보려고 했더니 잘 해결이 안되어 학교랑 상의한 후 홈스테이를 옮겼다.두번째 홈스테이는 나쁘지 않았으나 밤에 늦게(2~3시)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돌잔치도 우리집에서 하면서 나에게 알리지도 않아서 매우매우 안좋은 기억만 남았다. 또한 겨울에 가시는 분들은 좀 추울 수도 있는게 거의 대부분의 홈스테이가 난방을 안해준다. 그래서 가서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자서 불편했다.</p> |
| 식사 |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0) 외부식당 (0) 직접 요리 () 기타 ()</p> <p>주로 홈스테이에서 저녁을 먹었으며 점심은 싸주었다.가끔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나가서 먹었는데 다운타운 쪽에 다양한 나라의 레스토랑들이 많아 외식하기 좋다.그러나 홈스테이 가족분들이 동남아 분들이시라면 향신료가 많은 음식들을 먹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p> |

| | |
|----|---|
| | |
| 교통 | <p>첫 홈스테이는 학교에서 멀어서 버스랑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다녔는데 40분정도 걸렸던 것 같다.두번째 홈스테이는 학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다.그래서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즉, 홈스테이를 얼마나 학교쪽에 가까이 배정받느냐가 교통비를 좌우한다.하지만 한번 나가는 교통비가 비싼편이다(이천원 정도).따라서 먼슬리패스를 끊고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먼슬리패스는 한달에 십만원정도를 내고 무제한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 2,000,000 | 왕복 |
| Fees | 없음 | |
| 보험료 | 196,200 | DB 손해보험에서 가입 |
| 숙소 | 2,030,000 | 대략 |
| 식비 | 1,200,000 | 매달 300,000 |
| 교통비 | 400,000 | 매달 100,000(먼슬리 패스) |
| 책값 | 30000 | |
| 기타1 | | |
| 기타2 | | |
| 합계 | 5,856,200 | |

5. 출국 전 준비사항

소감 및 평가

우선 홈스테이는 정말 랜덤인데 운이 좋은 경우는 정말 좋고 나쁜경우는 나처럼 나쁜경우들도 정말 많다.우리 학교에서 같이간 나머지 2명은 정말 좋았다고 한다.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또한 문제가 생기면 홈스테이 오피스에 가서 문제를 잘 설명하면 영어를 못해도 친절하게 해주실 것이다.

특히 음식비가 비싼편이다. 한번 외식시에 한국돈으로 만오천원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있고 싼 음식점도 있으니 잘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보다 축제 같은 페스티벌을 많이 연다.할로윈때는 할로윈파티, 눈 페스티벌, 가든 페스티벌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니 학교에 붙여져있는 공고같은걸 잘 보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는 학교가 끝난뒤에 주로 반 친구들과 도서관에 가서 같이 공부했는데 이때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나라의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들을 수 있어서 좋다.따라서 친구들과 좀 친해지면 도서관에 가서 숙제를 하는 것도 좋고 어떤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여기 가자고 하는 것이 좋다.

처음엔 정말 잘 적응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다.특히 회화가 별로 안 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했는데 한국인을 보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하루종일 영어만 쓰게 되어서 그런지 귀국하고 더 훨씬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어 값진 경험을 한 것 같다.

7. 사진보고서



눈 페스티벌에서 슬라이드 기다리기



부쳐드 가든 페스티벌에서



시애틀 놀러갔을 때



학교에서 주관한 아이스링크 체험



록키 마운틴

